



글·사진 : 편집부

# 국내유일 닭고기 전문 전시회 2011 치킨페스티벌 성료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는 '다양하게 맛보고 즐기는 우리 닭고기' 라는 주제로 '2011 치킨 페스티벌' 을 4월 14일(목) 1층 B홀(구 인도양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시식행사, 요리강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계획되어 일반 관람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닭요리 세계여행'에서는 세계 23개국의 다양한 닭요리 24종을 전시하고 특별히 9개 요리를 선정, 하루 세 차례씩 한 번에 333인 분량의 시식코너도 마련됐다. 14일 개막일에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전통 의상을 입고 전시회 현장에 참여해 자국의 닭요리를 설명하고 직접 요리도 만드

는 시간을 가졌다. '말도 대표 닭요리' 코너에서는 초계탕을 비롯한 고명페백닭 등 우리나라 각 지역별 대표 닭요리가 전시됐다.

작년에 이어 닭띠 관람객에게 하루 선착순 333명에게 선물을 주는 '닭띠는 다 모여라', 닭고기 상식에 관한 퀴즈를 푸는 현장 퀴즈쇼 '도전 골든 닭!' 등 다양한 시식행사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에게 관람 재미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즐거움도 동시에 제공했다. 또한 기획전시된 치킨 뮤지엄은 세계의 다양한 닭문화가 소개되어 행사장에 볼거리를 더했다.

'2011 치킨 페스티벌' 행사장 한편에 우리 협회 회원사인



2



5



6



3



4



7



8

1 개막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2 (주)화인코리아 전시부스 3 (주)화인코리아의 삼계탕 및 죽제품 시연 4 (주)화인코리아 부스에 진열된 '치키더키' 상품들 5 서성배 한국계육협회장과 이환원상무의 시식 6 닭요리 세계여행 7 하림 전시부스 8 마니커 전시부스

(주)화인코리아의 홍보관도 볼 수 있었다. (주)화인코리아는 부스에 외화벌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삼계탕 및 죽제품과 '치키더키'의 치킨바베큐를 진열, 전시하여 브랜드 입지를 굳혔으며, 치킨제품 뿐만 아닌 훈제오리도 함께 전시하여 치킨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진행된 시식행사는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화인코리아는 오리 계열 업계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일찍이 해외시장을 개척하였다. 국내최초 삼계탕 통조림과 진공포장을 수출 해왔으며 2010년에는 오리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오리산업

의 초석을 다져왔다. (주)화인코리아는 이번 2011 치킨페스티벌 전시참여로 인해 '치키더키' 브랜드 홍보는 물론 관련업계의 더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 치킨 페스티벌'은 국내 계육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계육관련 전문 전시회다. 닭고기 전문업체를 비롯하여 치킨 프랜차이즈, 관련 식품 및 조리기구 등 관련업체가 참가하여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소자본 치킨 창업하기 및 소셜 커머스를 접목한 사업 설명회 등을 주제로 한 치킨 창업 세미나 개최하여 국내 치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